로컬플러스

정읍 고부면 제설반 발대식

고부면 제설반 발대식이 제설반원과 면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28일 고부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면에 따르면 제설반은 현재 30여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강설 시 지역 주요 도로와 마을 안길 등 제설작업을 위해 모인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은 자체 제설용 트랙터를 이용해 마을 진입로와 급경사지 등에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에 나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발대식에서는 제설반원들에게 각 담당 구역과 제설 방법 등을 설명하고 제설작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겨울철 폭설에도 교통이 편리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여성단체협-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서로 돕고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 구현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29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통합을 통한 이주여성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적응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한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최일동 김제시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의 복지향상과 사회통합 상호협력, 여성의 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상호교류, 기타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의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사업 진행 시 이주여성을 우선 포함하여 실시하게 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봉사활동 등 상호교류 지원하게 된다.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는 22개 단체 1,985명으로 구성되어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과 무료 급식봉사, 연탄나눔활동 전개 등 지역사회에 숨은 조력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김제시 거주 다문화가족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결혼이주여성으로 600여명과 결혼이민자 자녀 등 1300여명이 있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은 "서로 돕는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가 상호 협력하여 서로 베풀며 노력하자"

김제시,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선정

김제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정부 업무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아 올 한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써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신규수급자 발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지자체 확인조사 기간내 완수율,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대책 등을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분야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됐다.

김제시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읍면동과 연계한 민관협력추진을 통해 대대적인 신규수급자를 발굴한 결과 2016년 한해동안 930명을 책정하였으며,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적인 구제보호를 추진하여 2016년 12월 현재 16회 실시, 460세대를 구제하였다.

또한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조사 위해 실시된 월별조사 6회, 확인조사 2회에서 월별조사 724건, 확인조사 7,163건을 기간 내 완료하여 복지급여 효율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정부평가 전북 1위

사회복지 · 지역경제 안전관리 등 5개 분야 '가'… 나머지 '나' 등급

김제시가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북 1위를 차지하며 일 잘하는 지자체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등의 실적을 토대로 정부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평가는 9개 분야 100여개 세부지표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온라인평가시스템, 현지검증, 시·도간 교차 합동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전북도에서 시군별 정량실적과 우수 시책사업을 종합 분석 평가하여 등급화 하였다.

그 결과 김제시는 사회복지, 지역경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등 총 5개 분야에서 가 등급에 랭크되는 뛰어난 성과를 거뒀고, 나머지 4개 분야에서도 하위등급없이 나 등급을 받는 등 전 분야에서 실적이 대폭 상승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제시는 이번 합동평가에 대비해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우수시책 발굴 부서별 자체교육, BSC 성과관리 지표 반영, 추진실적 주간점검과 부시장 대면 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지표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김제시는 이번 정부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외에도 2016년 세밑 연거푸 ▲지평선축제 5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 ▲ 2016년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기관표창 ▲농산시책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며 대내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일년 동안 흘려온 땀과 노력들이 값진 결실을 맺어 매우 기쁘고 특히 시 행정 수준을 가늠받는 중요한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전 공직자 합심하여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결과로 이를 발판삼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김제발전에 더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모항 해수욕장 다목적 경보시설 설치

평시 기상정보 등 문자로 알리고 비상시 경보사이렌과 비상방송 실시

부안군이 해수욕장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변산면 모항 해수욕장에 다목적경보시설을 설치 해수욕을 즐기는 관광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우리 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지진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나 너울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설치한 다목적 경보시설은 천혜의 자연경관에다 안전시설까지 확보되어 모항 해수욕장이 전국의 명품 해수욕장으로 새롭게 각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목적 경보시설은 평상시에는 날씨 같은 기상정보 등을 문자로 알리고 너울성 파도나 갯골위험 등이 발생하면 경보사이렌이 울리고 원격 비상방송을 실시하여 해수욕을 즐기는 관광객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려는 시설이다.

70년대 전국 3대 해수욕장으로 이름을 날리던 변산해수욕장을 7년 간에 걸쳐 개발을 완료하고, 채석강과 적벽강의 격포해수욕장, 아름드리 해송으로 이름 난 고사포 해수욕장, 환상의 섬 위도의 해수욕장 등에 대해서도 경보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아름답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조성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관내의 겨울바다를 즐기는 관광객을 위하여 해수욕장 주변의 편의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정비 완료하여 부안을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이 해수욕장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변산면 모항 해수욕장에 다목적경보시설을 설치했다.

김제시는 지난해 12월 29일 대회의실에서 2016년 한해 동안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이·통장 112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김제시, 시정발전유공 시민 112명 표창

김운용 행자부장관상 · 송방용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김제시는 지난해 12월 29일 대회의실에서 2016년 한해 동안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이·통장 112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김운용 부량면 이장협의회장은 이웃간 화합을 도모하고 일선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모범적이 이·통장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고, 송방용 중부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김조영 학성강당농촌유학선비학교 이사 등 10명은 전라북도지사상을, 최석기씨 등 100여명은 시정발전유공 모범 이·통장 및 유공시민으로 선정되어 김제시장상을 수상했다.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인사말에서 "시민들의 단합된 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수상자들께서 시민단합과 더 행복한 김제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면서 "2017년에도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한다"고 끝을 맺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 큰 호응

드림스타트, 모래놀이 · 미술놀이 · 언어능력향상 등 운영

부안군 주민행복지원실 드림 스타트는 대상아동 중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큰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안군 드림 스타트는 지난해 3월부터 이달 말까지 대상아동 중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내면세계의 심리적 갈등, 불안, 분노, 슬픔 등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내재한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일환으로 '모래놀이', '미술놀이', '언어능력향상' 등의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상담사 및 관련 분야 박사들의 진행으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 아동들이 자신의 분노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감정을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높여 또래 관계 향상에 도움을 줘 양육자와 담임선생님에 대한 지지 및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다.

부안군 드림 스타트 관계자는 "올해에도 아동들의 지능검사 및 심리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집단놀이 및 일대 일 놀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지역 기관장 신년사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울타리 되도록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

희망찬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닭의 해를 맞아, 어둠 속에서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처럼 매일 새롭게 전진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가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었고 국내 유일의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준공되는 등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 여러분께서 애써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김제에 발생한 AI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비상방역활동 등 민·관·군·경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해 내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2017년 김제시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성장기반을 토대로 민선 6기 시정 목표인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건설'을 위한 발전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정이 어려울수록 구성원과 고락을 함께 나누어 힘을 모은다'는 단료투천의 다짐으로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 우리함께 희망으로 출발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천년 비전 '부래만복' 실현 최선

김종규 부안군수

부안과 전북을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그리고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땅',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는 '부래만복(扶來滿福)'의 고장 부안군을 만들어가는 김종규 부안군수입니다.

붉은 원숭이의 영험한 기운과 함께 시작한 2016년도 이미 지고 힘찬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부지런한 닭의 해 2017년 정유년의 첫 해가 떠올랐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6만 부안군민과 200만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오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민선6기 부안군정은 시작부터 '뼛속까지 부안정신'을 강조하면서 공직의 일하는 분위기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순풍에 돛단 듯 신바람 행정이 부안군정에 자리잡으면서 성과도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대표 축제인 부안마실축제 거리형 축제 개선, 나누미근농장학기금 122억원 확보, 세계잼버리 유치 국내 후보지 선정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 모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6만 부안군민의 사랑과 성원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군민행복'이 피부에 와 닿고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만여 군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과 애정을 반드시 부안발전이라는 결과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소망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뤄내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양심묵 정읍부시장 이임식

정읍시 양심묵 부시장 이임식이 지난해 12월 29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생기 시장을 비롯 3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이임식은 재임 활동 동영상 상영과 약력 소개,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재직 기념패 증정과 시의회 의장의 감사패, 공무원노동조합의 기념품, 이통장협의회 공로패 등 각각의 증정식이 있었다.

이어 김 시장의 송별사와 양 부시장 이임사가 이어졌다.

김 시장은 송별사에서 "민선6기 성과들을 이끌어내는데 부시장의 역할이 참으로 컸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고생한 부시장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양 부시장은 "정읍을 제2의 고향으로 여겨왔는데, 정읍에서 부시장을 하게 되어 큰 영광이고 보람이었다"며 "정읍시는 분명히 도약하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정읍의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부시장은 올해 1월 2일 인사발령에 따라 전북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옮기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현명 초대 부안해경서장 정년 퇴임

부안해경 초대서장인 전현명서장이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년 퇴임했다.

지난 1980년 공채로 해양경찰에 투신한 초대 전현명 부안해경서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세종시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정년퇴임식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전 서장은 부안 출신으로 군산 1007함장, 여수 해경 경무기획과장, 서해청 정보과장, 대천여름경찰서장, 제주해경본부 상황담당관, 군산해경서장 등을 역임하고 부안해경 신설과 초대 부안해경서장으로 부임해 중국어선 퇴치와 검거, 불법 어로행위는 물론 해안 질서 확립에 기틀을 마련했다.

전 서장은 경비함정에서 우수함정 세 차례를 수상했고, 해경 내 기획업무 전문가로 불리며, 현장지휘 능력과 행정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부안=이옥수 기자